

백록동규(白鹿洞規)·구사(九思)·구용(九容)·학자십훈(學者十訓)

미상(未詳)_주희(朱熹) 지음_39.0×120.0cm



주희가 제정한 백록동서원의 학규를 기록한 것으로 원제(原題)는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이다.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오륜(五倫)과, 박학지(博學之), 심문지(審問之), 신사지(慎思之), 명변지(明辨之), 독행지(篤行之) 등 「중용」에서의 학문의 순서[爲學次第], 수신의 요체[修身之要], 처사의 요체[處事之要], 접물의 요체[接物之要] 등을 기록하였다. 「백록동규」와 함께 구사(九思)·구용(九容) 및 「학자십훈(學者十訓)」이라 하여 주희가 위응중(魏應仲)에게 보낸 서간문에 수록된 수양의 열 가지 가르침이 부기(附記)되어 있다.

白鹿洞規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堯舜使契爲司徒 敬敷五教 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

博學 審問 慎思 明辨 篤行

右窮理之要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誼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學者十訓

起居坐立 務要端莊 不可傾倚恐至昏怠

出入步趨 務要凝重 不可剽輕以害德性

以謙遜自牧

以和敬待人

凡事切須謹防

無故不須出入

少說閑話 恐礙光陰

勿觀雜書 恐分精力

早晚頻自點檢所習之業

每旬休日將一旬內書溫習數過勿令少有放佚則自然漸近道理講習易明矣

백록동규[白鹿洞規]

부자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이상은 다섯 가지 가르침의 조목이다. 요순(堯舜)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다섯 가지 가르침을 경건히 베풀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이를 배우는 것일 뿐이며, 배우는 순서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 구별은 다음과 같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변하고, 독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상은 공리의 요체이다.

말은 충신하고 행실은 독실하고 경건해야 한다. 분노를 참고 욕심을 막고, 선한 데로 옮겨가며 허물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이상은 수신(修身)의 요점이다.

의를 바로잡고, 사욕을 꾀하지 말아야 하며, 도를 밝히고 공로는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이상은 처사(處事)의 요점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며, 행하여 얻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하라.

이상은 사람을 접할 때의 요점이다.

발걸음은 무겁게 놀리며 손을 공산하게 간수하며 단정한 누빛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입은 꼭 다물고 함부로 열지 않으며 목소리를 조용히 내며 머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기운을 엄숙히 유지하며 설 때는 덕성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안색을 씩씩하게 유지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며 들을 때는 잘 들을 것을 생각하며 색에는 온화한 것을 생각하며 용모에는 공손함을 생각하며 말에는 충을 생각하며 일에는 경을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며 화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얻은 것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라.

학자 심훈[學者十訓]

앉거나 서거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도록 힘써서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기대서는 안 되며, 자칫 혼미해지거나 나태해질까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들어가고 나가거나 걷고 달릴 때는 엄숙하면서도 신중하도록 힘쓰고 자칫 가벼이 움직임으로써 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겸손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온화함과 공경함을 가지고 남을 대하거라.

매사에 삼가고 경계하여

이유 없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한담(閑談)을 적게 하거라. 시간을 허비하게 될까 염려되니라.

잡서를 읽지 말거라. 정력을 분산시키게 될까 염려되니라.

아침저녁으로 자주 익힌 학업을 점검하고

열흘마다 한 번 쉬는 날에는 열흘 동안 본 책을 가지고 익숙해지도록 몇 번을 익혀 마음을 조금도 방일(放逸)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점차 도리에 가까워져서 감습한 것이 쉽고 분명해질 것이다.

※ 주희 『朱子大全』 卷73, 雜著, 「白鹿洞書院揭示」; 주희 『朱子大全』 卷39, 書, 「與魏應仲(元履子)」에 수록